



##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進展을 위한 提言

Suggestions for a New Development in a Study on the History of Gaya

---

저자 (Authors)	주보돈 Ju, Bo-don
출처 (Source)	<a href="#">한국고대사연구</a> , (85), 2017.03, 5-32 (28 pages) <a href="#">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a> , (85), 2017.03, 5-32 (2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고대사학회</a>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478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4785</a>
APA Style	주보돈 (2017).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進展을 위한 提言. 한국고대사연구, (85), 5-3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0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進展을 위한 提言

주보돈\*

- I. 들어가면서
- II. 가야사 연구의 不進
- III. 가야사 연구의 進전과 한계
  1. 舊說을 고수·집착하려는 경향
  2. 新說에 대한 입장
- IV.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색

### 국문 초록

이 글은 최근 가야사 연구가 質量의 두 측면에서 활기를 잃어버리고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前提로 해서 거기에 내재된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보고, 나아가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모색해보려는 의도에서 작성해본 것이다. 가야사 연구는 70년대 이후 한때 일종의 붐을 타고서 큰 성황을 이루었다. 그 결과 전례 드물게 성과를 올림으로써 그 이전에 비교하여 이해도를 한층 더 드높일 수 있었다. 가야사 관련史料가 매우 희소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

\* 경북대 사학과 교수

대표논문: 2014 「신라 金入宅과 財買井宅」 『신라문화』 46; 2014 「백제사 관련 신출토 자료의 음미」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노태돈교수 정년기념논총); 2016 「廣開土王碑와 長壽王」 『木簡과 文字』 16.

면 괄목할 만한 발전이었다고 평가하여도 무방할 듯싶다. 거기에는 새로운 문헌자료의 증가보다는 발굴 작업을 통한 고고자료의急増이라는 사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어떤 緣由에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가야사 연구가 질량의 두 측면에서 상당한 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 원인을 나름대로 추적하고 분석해냄으로써 기왕과 같은 전성기를 구가해볼 길은 없을까를 탐색해보는 문제제기를 시도하였다.

주제어 : 가야사 연구, 활성화, 고고자료, 문헌자료, 문제제기

---

## I. 들어가면서

이 글은 최근 가야사 연구가 質量的 두 측면에서 활기를 잃고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前提로 해서 거기에 내재된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보고,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방면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목표로 기초해본 것이다. 그를 위해 언뜻 떠오르는 몇몇 문제점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평소 이 방면에 깊이 전념하고 있는 연구자는 물론 약간이라도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과 더불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현재의 가야사 연구가 매우 부진하다는 진단 자체가 반드시 실상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sup>1)</sup> 그래서 그런 전체 자체가 단지 지나친 편견과 거기에서 비롯한 순진한 杞憂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말 더할 나위없는 다행으로 여기겠다. 하지만, 가야사 연구 현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

1) 고고학의 입장에서 다룬 가야 관련 논고는 적지 않게 찾아지나 문헌상의 입장에서 가야사를 다룬 논고는 적다. 그 가운데 특히 조금이라도 주목해볼 만한 새로운 접근은 드문 편이다. 최근까지의 관련 논고의 목록에 대해서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 2014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참조.

느껴진다. 局外者(?)의 따가운 비판이 간혹 아프게 다가갈 수가 있겠지만 귀담아 들어본다면 害惡보다 오히려 補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이 일반적 양상이다. 사실 필자는 현재 가야사 연구의 주변부로부터 중앙부를 향해 들여다보려는 입장에 있으므로 일단 지나친 주관이나 선입견에 따른 편견은 비교적 적고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듯하여 감히 문제 제기를 해보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약간은 바람직스럽고 또 적절한 대안까지 마련할 여지가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여하튼 여기에서는 가야사 연구의 현황이나 이 분야 기존 연구자들이 도달한 현황을 막무가내 식으로 비난·비평하려는 자세가 아님은 분명하게 밝혀둔다. 오히려 同病相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앞으로 가다듬어야 할 기본적 자세 및 방향에 대해 평소 필자 나름대로 느껴온 소회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어떤 적절한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소박한 의도를 갖고서 임하였다. 이런 시도가 빈약하나마 가야사뿐 아니라 한국 고대사 분야 전체를 알게 모르게 살찌우는 방편의 하나이기도 할 터이기 때문이다.

## II. 가야사 연구의 不進

최근 수년간 진행된 가야사 연구의 동향을 일별하면 매우 부진하다는 듯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그동안 발표된 論著의 수량에서는 물론이고,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각별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어서 질적으로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게다가 새로운 연구자의 공급도 거의 멈춰진 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때 가야사 분야에 주목을 끌어 이를 다룬 석·박사

학위 논문이 일시에 다량으로(?) 쏟아짐으로써 연구자가 제법 배출된 적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영남의 낙동강 유역권 여기저기에서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내건 학술행사가 마치 유행이거나 한듯이 활발히 치러졌으며, 그 결과로서 다양한 형태의 적지 않은 논저들이<sup>2)</sup> 간행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야사 분야의 전반적 연구 수준은 기존에 견주어 한 단계 드높여졌음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사실이다. 그래서 당시 한동안은 가히 가야사 분야가 전례 드물게 큰 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그때 분출된 열기는 가야사 분야의 연구가 한국고대사 전반을 추동하며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길 만큼 매우 뜨거웠다. 昨今の 현황은 거기에 對比해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가야사 연구 열기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급작스레 식어갔을까는 무척 궁금증해지는 대목이다. 이는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들이기도 한 셈이다. 가야사 분야 연구의 촉진을 도모해 새 기운을 불어넣으려면 우선 그렇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부터 냉정한 시각과 입장에서 진단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업이다.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정도로 그 요인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도 마련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실마리로 가야사 연구 추세를 虛心(?) 입장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의 흐름 전반을 점검하면 가야사 분야가 것처럼 부진의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된 요인으로서는 일단 크게 내적, 외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야사 연구가 한때 호황을 누렸던 듯이 비쳐진 점도 엄밀히 따진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착실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꾸준히 축적되어온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밑바닥으로부터 분출된

2) 대표적으로는 고령을 비롯하여 김해, 함안, 의령 등의 지역을 손꼽을 수 있다.

결과가 아니었다. 당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던 환경적 요인이 주로 작동한 결과라는 데에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사실 가야사 연구가 활성화된 데에는 먼저 정치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점이 지적된다. 가야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동하고 나아가 가야고고학이란 새 분야가 나오도록 하는 첫 계기였다고도 할 고령의 지산동 44·45분 발굴부터 그러하였다. 이후 고령은 물론 이어진 김해 지역 일대에서 국가 기관 주도로 활발하게 진행된 많은 발굴의 결과도 또한 그러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가야사 연구가 그러한 외부로부터 행·재정적 도움과 지원을 받은 사실은 당연히 나름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일정 시점, 일정 상태에 이르자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바뀌어져 갔다. 연구자들의 자생력을 기르는 계기가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여하튼 가야사 연구가 일시적 현상이나마 한때 큰 붐을 이룬 것은 학문 외적인 외부로부터 가해진 자극이나 도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도리어 현재의 침체를 가져오는 요소의 하나로 작동하게 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사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야사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기울인 정황과 그 결말을 잠시 더듬어보면 저절로 드러난다. 당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체들은 앞 다투어 특정한 목적성을 갖고서 가야사 방면의 연구를 적극 후원하였다. 당해 지역이 인근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점을 애써 강조함으로써 차별화·특화시키려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와 같은 근거와 명분을 가능하면 역사 속에서 찾아내어 활용하려고 하였다. 그런 地域史 연구 성과를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정체성 근거가 것처럼 연원이 매우 오래고 뿌리가 깊음을 상호 경쟁적으로 내세우려고 하였다. 지방자치제가 전국에 걸쳐 시행되자마자 각 단체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때 낙동강 유역권 일대에서는 가야사를 주

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야의 역사와 약간이라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 지역 대부분은 치열하게 경쟁하다시피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지역사와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를 다룬 각종 학술행사 및 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정치색이 강한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을 이어갔다. 그런 과정을 연연이 되풀이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콘텐츠가 어느 정도 축적되게 되자 이제는 이를 근간으로 삼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의도로 각종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하다 싶으면 지역사와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데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물론 이와 같은 시도 자체를 마냥 비난할 일은 결코 아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자칫 학문 본래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었다는 데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야사 분야 연구자들은 그런 분위기에 알게 모르게 점점 길들여져 갔던 것이다.

그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들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았으며 전국에 걸쳐 벌어진 현상이었다. 그중 역사 속에서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내려는 작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지역의 하나로서는 이른바 가야문화권을 손꼽을 수 있다. 가야문화권이 그런 분위기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일단 가야 정치체의 성격이나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이라 여겨진다. 사실 가야권역에 속한 여러 정치체들은 성립된 뒤 각기 통합 운동을 추진하였으나 끝내 하나의 단일한 국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마침내 분립된 상태로 멸망까지 맞게 된 사실이 그 밑바탕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각 지역 단위의 기원을 한국사 속에서 찾으려 한다면 익히 아는 바처럼 삼국 시기의 이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럴 때 단위 지역의 정체

성을 찾을 만한 역사적 시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상이 가야권이였다. 특히 영남권 일원에서 신라가 아닌 가야가 하필 지역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가는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당대가 정치적으로 분립된 상태였다는 사정과 밀접히 연관된 일이었다. 신라는 경주분지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 출범한 읍락국가 斯盧가 마침내 단일한 정치적 통합체를 일구어내는데 성공한 국가였다. 따라서 신라라면 오로지 경주분지 거기만이 정치적 중심부(중앙부)였던 셈이었다. 신라의 영역에 포함된 나머지 여타 지역은 어디까지나 그에 부속한 주변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라권역에서 지역 정체성의 시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경주분지뿐일 따름이었다. 영남권에서는 그곳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지역도 그 정체성의 뿌리를 신라사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 지역들은 신라라는 뿌리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결국은 주변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문화는 어디까지나 중앙부의 아류일 따름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실상에 견주어보면 가야사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달라진다.

통합되지 못하고 분립된 상태로 始終하였던 가야사에서는 여러 지역 각각이 독립성을 보유한 중심부로 인식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 뿌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였다. 가야사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라 할 정치적 分立性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되살아난 모습이었다. 그래서 가야문화권에 소속한 현재의 각 거점 지역은 그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앞 다투어 고고 발굴 작업을 지원하였고 그것이 마침내 가야사 연구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를 매개로 해서 가야사 연구를 적극 독려하고 후원하여 왔던 것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가야사, 가야고고학 방면 연구가 크게 촉진됨으로써 다대한 성과를 올렸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가야사 및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 점 또한 특기해볼 만한 대상이다. 그를 통해 기왕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각종 자료들이 새롭게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분위기가 널리 퍼져가면서 결국 가야사 연구가 한결 활성화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도 적지 않게 배태되어 갔다. 어떤 형태로건 지역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게 되다보니 저절로 그들의 요구에 맞춘 역사 해석을 가해 부응하려는 경향도 알게 모르게 생겨났다. 지역민(사실상 주로 지역 정치인)의 요구에 따라 가야사를 당해 지역 중심의 입장과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함으로써 실상과는 크게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거나 과도하게 포장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다. 단순한 해석의 수준을 뛰어넘어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런 해석 자체가 당연히 영속적 생명력을 지닐 리가 만무하려니와 결과적으로는 가야사 연구의 침체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그로부터 가야사 연구는 앞으로 더 나아갈 동력과 방향을 잃고 장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평소 설정해왔던 특정한 목적을 이룬다면 기실 더 이상 이 방면에 관심을 쏟을 명분과 근거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근자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학술적 모임이나 지원 등이 전반적으로 뜸해진 이유의 하나는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들로서는 기존 연구자의 이야기에서 더 이상 참신한 내용을 얻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가야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야사 분야 연구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의도가 깔린 지원이란 보약이면서 동시에 毒素로서 작용하였던 셈이다.

그런 정황 아래 최근 가야문화권에서는 당해 지역 여기저기 산재한 高塚古墳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는 신라나 백제의 王都 지역에서 추진한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올린 데서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근간으로 한다면 가야권에서도 그런 시도가 충분히 성사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이겠다. 그래서 가야권 중심지인 고령이나 김해 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아 그를 겨냥한 학술회의를 몇 차례 열었고, 또 당분간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터이지만,

설정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다면 그런 추세가 더 이상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아마도 일단 설정 목표를 이룬 뒤 열기가 식어질 즈음이면 그때는 더 이상 순수한 가야사, 가야문화 쪽으로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장차 그를 매개로 하는 문화 콘텐츠 자료의 확보나 경제적 이득이란 현실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가야사 분야에 대한 순수한 연구 지원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벌써 그런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그와 같은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리라 여겨지지만 그럴 때 가야사 연구는 더욱 침체 상태에 빠질 것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가야사에 대해 순수한 학술적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신진 연구자가 이어질리 만무한 일이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여하튼 가야사 연구에 정치성이 상당하게 투입된 결과라 하겠다.

과거 특정 정부 시절 장기적이고 체계적 전망을 하지 않은 채 가야문화권의 복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시에 엄청난 재원을 퍼부었다가 완전히 손을 떼고 더 이상 관심을 꺼버린 후가 작지 않았음도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되새겨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아무런 장기적 전망을 갖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에만 기대어 가야사 연구나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일은 가능한 한 자제하면서 자체 에너지로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만 미래를 어느 정도라도 전망할 수 있다.

### III. 가야사 연구의 진전과 한계

이상에서 순수한 목적에서의 가야사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의 정치적 입장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것이 일시 크게 붐을 이루는 것 같았으나 최근 한걸음씩 뒤로 물러서면서 급작스런 침체 상

태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결국 이 방면 연구자들이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가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사실 각 지역 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정치성을 지니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善意를 갖고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학술 관련 행사가 되풀이 진행되면서 점점 순수성은 약화되는 반면 정치성이 더욱 강하게 스며들어 갔다. 그리하여 때로는 가야사의 실제와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연구 자체가 본래 의도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거기에는 당연하게도 재정 지원을 맡은 각 지역의 여론이 크게 의식, 반영된 결과였다.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데에 연구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한 몫을 하였음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런 양상은 그동안의 연구를 대충이라도 점검하면 저절로 드러난다.

사실 1970년대 이후 가야사 방면의 연구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틀림없다. 거기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수준의 고고자료가 발굴을 통해서 출토되거나 기존의 문헌사료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향상시킨 결과였다. 이를테면 고령의 지산동고분군, 합천의 옥전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김해의 대성동고분군 등등 이렇다 할 두드러진 몇몇 가야고분의 발굴을 통해 확인된 풍성한 유물·유적의 양상은 가야사와 가야문화를 새롭게 조명해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더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가야사 관련 사료를 상당히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관심 밖에 두었던 『일본서기』에 대해 百濟主體論이란 탁월한 신설이 매개되어 사료로서 본격적인 활용을 길이 열린 사실이 문헌상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구자들의 꾸준한 수적인 증가 추세 및 역사학 분야 전반에 걸친 질적 연구 수준의 향상 등이 그를 한층 추동하였다. 그 결과 다른 분야에 견주어 가야사, 가야문화 분야 연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였다고 평가하여도 그리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그 이전에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였던 다양하고 참신한 新說이 적지 않게 나온 사실만으로

도 그 점은 충분히 입증된다.<sup>3)</sup>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제기된 신설과 주장을 대상으로 이 방면 연구자들이 학문적 성장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객관성을 담보해 내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의 하나로서 치밀한 검증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상호 비판과 반비판이 이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후속 작업이 빠졌다는 데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야사 연구가 침체되기에 이른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그러한 연구자들의 내부 자제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활발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가야사 분야에서는 유독 문제 제기된 주제를 중심에 두고서 그와 같이 토론하는 場이 제대로 마련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대체적으로 가야사를 중점적으로 구명하려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기존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무비판적으로 은근히 받아들이면서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새로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함께 면밀히 검토해볼 여지를 갖지 않고 처음부터 무조건 외면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향성을 질게 보여 왔다. 아래에서는 그런 대상들 가운데 특히 뒷날 가야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여전히 검토해야 할 여지를 갖고 있는 몇몇 주요 대상을 중심으로 그런 지적 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름해보기로 하겠다. 먼저 오래도록 통설로 받아들여 왔던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신설로 제기된 몇몇 주제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1. 舊說을 고수·집착하려는 경향

어떤 국가에 대해 전반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

3) 이런 경향 전반에 대해서는 朱甫暎, 1995 「序說 -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참조.

로서 정치사회의 전개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몇 시기로 잘게 나누어보려 함이 일반적 양상이다. 이를 흔히 시기구분이라 일컫는다. 가야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기를 나누어 이해하는 대상이었음은 물론이다. 근대적인 방법에 입각한 역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 가야사 전체는 크게 전후하는 두 시기로 구분해 이해하여 왔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sup>4)</sup>

가야사 전반을 것처럼 두 시기로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 데 활용된 기본 사료는 『삼국유사』 五伽耶條였다. 거기에 보이는 내용 분석을 근간으로 『駕洛國記』의 금관가야 중심 建國神話와 『新增東國輿地勝覽』 29 高靈郡 建置沿革條에 인용된 「釋利真傳」에 실려 있는 대가야 중심의 건국신화를 적극 끌어들이는 결과였다. 오가야조를 통해서는 금관국을 맹주로 한 6가야연맹체와 대가야를 맹주로 하는 6가야연맹체의 둘을 상정하였고, 그런 실상을 역시 다른 측면으로부터 보증해준 것이 두 맹주를 중심으로 삼은 각각의 건국신화였다.

처음부터 두 연맹체가 맹주로서 같은 시기에 병존한 것이 아니라 각기 시차를 달리하면서 先後하였던 것으로 논단하였다. 어느 쪽이 먼저 맹주 역할을 하였고, 다른 쪽이 그를 이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일정하게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변동이 발생한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대동강 유역과 그 이남의 樂浪郡 및 帶方郡을 영역으로 흡수하는 313·4년으로 잡았던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입장이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신화적·설화적 내용을 주된 근거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가야권역에 소속한 정치체를 오직 6개만 설정한 점 등은 실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가야조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논자는 없다고<sup>5)</sup> 단언하여도 무방할 듯싶다. 그럼에도 이상스럽게 그로부터

4) 이에 대해서는 千寬宇, 1977 「復元 加耶史(上)」 『文學과 知性』, 1977 여름호 ; 1977 「復元 加耶史(中)」 『文學과 知性』, 1977 가을호 ; 1978 「復元 加耶史(下)」 『文學과 知性』, 1978 봄호 ; 1991 『加耶史研究』, 일조각 참조.

5)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참조.

나온 전·후기 가야연맹체의 설정은 아무런 검증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처럼 근거가 매우 박약한 주장이기는 하였으나 4세기 초를 하나의 변동기로 설정하였다는 사실에서는 나름의 일정한 의미가 찾아진다. 바로 이 시점이 한반도 남부 지역 전체를 살필 때 三韓에서 三國으로 이행하는 커다란 격동기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곧 변한사회로부터 가야사회로의 전환도 진행된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시 가야사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흐름을 다루지 않고 삼국시대사 전체의 전개 과정 속에서 가야 정치체의 성립과 변동을 파악하려 하였다라는 점에서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가야사를 다룰 때 삼국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돌리려 하지 않고 그에 대해 별로 개의하지 않으려는 경향과는 매우 대조적인 측면을 보였다. 다만, 사료상(문헌과 고고자료)의 명백한 제약 때문이었으나 가야의 내부 구조나 그것의 내재적 전개 양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후로 구분하려고 접근한 점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 이해였다. 이런 경향성은 뒷날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는 가야사를 역시 동일하게 전후하는 두 시기로 구분하면서도 이제는 기왕과는 다르게 400년을 주요 분기점으로 설정하는 신설이<sup>6)</sup> 제기·확산되어 갔다. 가야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맹체만 존재하였는데, 그것도 전기에는 금관가야가, 정치적 변동을 거친 후기에는 대가야가 그 맹주로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현재 가야사 분야에서는 거의 움직이기 힘든 통설적 견해로 뿌리내리다시피한 상태이다.

그처럼 구분하는 주된 근거로 동원된 핵심 사료는 廣開土王碑文이었다. 거기에는 400년 고구려 廣開土王의 5만에 달하는 대병력이 백제의 사주를 받은 倭와 任那加羅의 공격으로 王城을 함락 당한 신라의 요청에 부응해서 남

6) 金泰植, 1993 앞의 책.

하함으로써 그를 멸망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이 보인다. 광개토왕의 대병력 남정으로 금관국 중심의 이른바 前期가야 연맹체는 저절로 해체하고, 한동안 내부를 재정비하는 잠정적 경과를 거쳐 금관가야 대신 대가야를 맹주로 하는 새로운 후기 가야연맹체가 결성되었다는 것이다.<sup>7)</sup> 이를 흔히 가야사 입장에서 제기된 광개토왕의 南征論이라고 일컫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의 타당성 여부를 잠시 쫓겨놓고서 통설로 자리 잡기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 차례도 진지하게 그를 둘러싼 적절성 여부를 공론화해서 다룬 적이 없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료적 근거가 과연 적절하였던가, 왜 고구려 병력의 남정을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면밀하게 점검해 보지 않고 그냥 기정사실화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사실 고구려 남정으로 가야권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대가야가 그를 틈타 유력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인지,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친 것인지, 대가야 浮上의 동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등등 가야사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본질적인 대상을 놓고 세밀히 검토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으나 대부분 건너뛴 채 오직 그럴 듯하다는 막연한 느낌만을 갖고 다수가 암묵적 동조를 함으로써 그것이 통설화 되다시피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新說이 명실상부하게 통설로서 뿌리내리려면 적절하게 치열한 論戰의 과정을 거쳐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럴 때 거기에 내재된 문제점이 해소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제점이 추출되기도 하면서 세련된 통설로서 정착될 터이며, 때로는 다른 한층 큰 문제 제기가 그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연구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막연한 입장에서 무조건 통설로서 받아들이는 자세는 학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허술하기 그지없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 방면을 專論한 연

7) 金泰植, 1993 위의 책.

구자가 그 타당성 여부를 놓고서 본격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과문한 탓인지 별로 접촉한 적이 없다. 가야사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그런 자제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은 남정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저절로 드러난다.

소위 남정론은 원래 고고학적으로 논란되어온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과 함께 거기에 대량으로 부장된 다양한 종류의 金工威勢品 및 武具·馬具類의 유래를 밝히기 위해 광개토왕비문을 적극 이용하려한 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조영된 고총과 같은 큰 무덤이나 그로부터 출토된 물품들이 남정의 결과로서 신라가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유입된 것으로 풀이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적석목곽분과 금공품류가 신라에 들어오게 된 상한 시점은 400년으로 낙착되었다. 그것이 곧 가야사의 이해에도 원용됨으로써 탄생한 것이 바로 가야사를 전후하는 두 시기로 나누어본 남정론의 실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400년 고구려 대병의 남하로 낙동강 유역의 신라권과 가야권에서는 동시에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엄청난 변동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제기 이후 신라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발굴 자료가 축적되고 그를 근간으로 삼은 고고학적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까지 향상됨으로써 신라사와 연루된 남정론은 이미 근거를 상실하고 더 이상 주장하기 곤란해진 상태이다. 신라의 적석목곽분이나 금공품 및 무구·마구류들은 늦어도 4세기 중엽에는 유입되었음이 그동안 많은 발굴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약간의 반론이 뒤따르기는 하였으나 신라사 중심의 남정론은 더 이상 성립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sup>8)</sup>

그러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약간 뒤늦게 부각되어 널리 퍼진 가야사를

8) 광개토왕 남정론이 갖는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는 朱甫暎, 2006 「고구려 남진의 성격과 그 영향 -광개토왕 南征의 실상과 그 의의-」 『大丘史學』 82 및 宋源永, 2010 「金官加耶와 廣開土王碑 更子年 南征記事」, 부산대석사학위논문 참조.

전후기로 시기를 나누는 주장은 재론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았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서 아무런 변동 없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의 성립 가능성 여부를 떠나 아예 논쟁의 도마 위에조차 올리려고 하지 않았거나와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이를 모른척함이 실상이라 하겠다. 심지어는 『일본서기』를 가야사 복원에 적극 활용하는 추세 속에서도 그런 설정에 어긋난다고 하여 가야사 분야에서만 유독 이른바 神功紀 49년(369)조를 사료로서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백제사 분야에서 동일한 기사에 대해 보이는 자세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가야사가 부진한 所以는 바로 그와 같은 자세에서 비롯된 바가 작지 않다. 근거가 박약하고 모순되며 논리가 허술한 주장임에도 기존 연구자들이 논쟁을 거침이 마땅함에도 합세해서 그를 움직일 수 없는 정설로 묵시적 동의를 함으로써 고착시켜 버리고 말았다. 그런 분위기라면 여느 신진기예의 연구자라도 힘에 눌려 감히 호기롭게 도전해 볼 엄두를 내기가 힘들 터이다. 기성 연구자들이 모두 自說을 고수하기에 급급하고 무조건 합심해 방어하려 함으로써 문제 제기가 스며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만 것이 근본적 문제였다.

한편, 고구려 광개토왕의 대병력 남정 사건으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된 사실을 설정한 이후 그 향방에 대해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남정으로 가야연맹체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 상정된 금관가야의 잔존 세력이 이제는 바닷가로부터 낙동강 본류를 거슬러 내륙 깊은 곳으로 들어가 대가야나 아라가야(安羅)의 유력세력으로 재탄생하였다거나,<sup>9)</sup> 혹은 낙동강 어귀의 바로 건너 맞은편 부산의 동래 방면으로 진출해 재건·연합하였다는 신설까지<sup>10)</sup> 제기되었다. 도대체 전쟁에서 패배 당해 갖고

9)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해안.

10) 신경철, 1995 「金海 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있던 기반을 모두 잃어버리고서 쫓기던 정치세력의 중심부가 적대세력으로 부터 한결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가까이로 다가갔다는 설정 자체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그런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인식이 가야사나 가야고고학 연구 일각에서 버젓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들 견해는 신라를 비롯한 인근 정치세력의 형편이나 사정은 거의 염두에 넣지 않고 오로지 금관가야에만 초점을 맞춘 채 논리를 펼침으로써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마치 無人之境이었던 듯이 여기는 식의 접근이었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치 정설이라도 되는 듯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이 방면 연구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척 不關焉의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상호 건전한 비판과 反비판이 풍성해질 때 비로소 가야사 분야의 연구 전반이 자연스레 활성화할 여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연구자들이 스스로를 자신들 각자가 만든 좁은 우리 속에 가두고 어설피게 牙城을 지켜내려는 마당이라면 가야 연구가 어떻게 진전할 것이며 어느 누가 이에 관심을 가지려 들겠는가. 허심한 轉回의 자세와 입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2. 新說에 대한 입장

기실 가야사를 전·후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 이해하는 기준은 일단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야사회 자체 내부의 발전과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도출된 견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정치사회 발전에 대한 전체상이 도출된 바탕 위에 추진한 시기 구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나는 데에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우리가 역사 일반에서 시도해보는 시기 구분의 근거와는 확연히 다른 측면이기 때문이다. 기실 가야사를 400년 기준으로 해서 전·후기로 구분하려면 그 사회가 어떤 내부적 변동을 겪으면서 원래의 기본 구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어졌기에 것처럼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별될 수 있는 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시도는 지금껏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막연하게 가야연맹체의 맹주가 전·후로 바뀐다는 점만 설정해 강조해 왔을 따름이다.

그런 주장이 오로지 가야사에서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인근의 신라나 백제의 동향과도 연동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문제이다. 당시 가야만이 별개로 동떨어져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가야가 여러모로 볼 때 정치적 후발주자였으므로 주변의 한층 강력한 정치세력과 연동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은 가야사의 변화를 추적해 보려 할 때 당연히 고려해보아야 할 대상이다.

사실 가야사를 크게 전·후기로 구분할 때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연맹체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규명의 문제이다. 이미 가야사 연구의 출발선상에서부터 가야 정치체의 성격에 대한 개념은 매우 불분명하게 둔 채 단순히 연맹체라고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무조건 당연하게 여김이 지배적 경향이 었다. 가야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과연 그런 용어가 적절한지, 연맹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며, 그것이 실상과 부합하는지 등의 문제를 놓고 또한 본격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친 적이 거의 없다. 물론 오래전 단일 연맹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sup>11)</sup> 지역연맹체란 용어가 그 대안으로 잠시 제기되기는<sup>12)</sup> 하였으나 외면당함으로써 찾잔 속의 태풍으로 그친 감이 든다. 여러 가야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단일한 연맹체는 지금이라도 그 성격이나 내용이 어떤 형태로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마땅한 대상이

11) 이영식, 1985 「가야제국의 국가형성문제 -가야연맹설의 재검토와 전쟁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32 ; 남재우, 1995 「가야사에서의 ‘연맹’의 의미」 『창원사학』 2.

12) 이에 대해서는 백승충, 2005 「가야의 지역연맹체론」 『지역과 역사』 17 ; 백승욱, 2014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가야지역국가론」 『지역과 역사』 34 참조.

다. 그러고서도 가야사가 체계적으로 구명·정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야사 연구의 활력을 떨어지게 한 요인의 하나도 바로 이런 외면 구조에서 찾아진다.

연맹체라면 실태나 내부 구조는 어떠한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구성 세력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를 대표하는 맹주가 실재하였다면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맹주와 구성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 각각의 의무와 권리는 어디까지였는지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면서 풀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야가 단일한 연맹체로 존재하였다면 그것이 언제, 어떤 배경 아래 어떤 과정을 밟아 성립한 것인지, 그에 앞서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는 변한연맹체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어떤 변동을 거쳤고, 무엇을 계기로 그것이 가야연맹체로 전환하게 된 것인지 등등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가야연맹체의 맹주가 바뀌었다면 전·후기 연맹체에는 성격상 어떤 차이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에서부터 어떤 상태로 이행해 갔는지 등등이 해명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조금도 구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한 단일 연맹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지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할 따름이다.

기실 6세기 중엽 강대국 백제와 신라가 가야를 놓고 대립·갈등하는 양상을 보이자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야의 여러 유력 정치체들은 각자 생존 도모를 위한 지구책의 일환으로서 함께 백제를 교섭 대상으로 삼아 그 왕도인 사비에서 두 차례나 소위 任那復興會議<sup>13)</sup> 열었다. 그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얼핏 들여다보면 당시 상설적인 단일의 가야연맹체가 존재하였다고 상정하기에는 약간 곤란한 측면이 엿보인다. 그와 같은 임나부흥회의는 오히려 거꾸로 상설적인 가야연맹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뚜렷한 근거가 될 수 있거니와

13) 임나부흥회의에 대해서는 백승충, 1993 『임나부흥회의의 전개와 그 성격』 『부대사학』 17.

그런 실상의 시원을 언제, 어디까지 소급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개별 국가의 형성 이후 어느 시점부터 가야연맹체가 결성되었다가 뒷날 어떤 연유로 해체되면서 것처럼 임시(수시)의 회의체 형식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연맹체는 존재하지 않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실상인지 등등은 연맹체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단일한 가야연맹체의 존재를 상정, 그것이 줄곧 존재한 것으로 고집해서는 학문적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와 관련해 가야 가운데 여러모로 중심자적 역할을 맡은 대가야의 국가적 성격도 본격적인 재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다. 새 자료가 출현하면서 대가야 정치체에 대해서 기왕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몇몇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또한 가야사를 발전적 입장에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미·검토해볼 만한 대상이지만 지금껏 거의 논외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충남대 박물관이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는 대가야 계통 토기인 장경호의 몸통과 뚜껑에 보이는 두 개의 ‘大王’이란 명문과 부산대박물관이 발굴해 소장하고 있는 합천 苧浦里 출토 短頸壺의 아가리 부분에서 확인되는 ‘下部’란 명문이 그런 실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양자는 모두 6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을 어떻게 해석하든 당시 대가야 지배체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삼국 가운데 인근 신라 경우는 비슷한 시기인 6세기 전반 6부를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라 할 이른바 부체제로부터 국왕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강력한 지배질서인 중앙집권적 체제로 전환해간 것으로 보고, 그런 실상을 뚜렷이 반영해 주는 근거가 바로 大王(또는 太王)과 같은 왕호의 사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가야에서 대왕호를 사용한 사실은 예사روی 보아 넘겨서는 곤란한 일이다. 그런 실상을 함께 방증해 주는 것이 곧 부의 존재이다.

원래 부는 제각각 血緣性과 地緣性을 함께 지닌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단위 정치체로서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을 보유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를 중핵으로 해서 정치가 운영되던 지배질서를 흔히 部體制라 일컫고 있는 것이다.<sup>14)</sup> 부체제는 邑落國家로부터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바뀌어져 가는 도중에 거쳤던 하나의 과도기적인 단계였던 셈이다. 그런 상태가 정치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로 전환하면서 부의 공동체성이나 독자성은 점점 약화되고 대신 王都를 행정적으로 구획하는 성격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최근 연구 경향에 의하면 삼국 모두가 그와 같은 부체제 단계를 공통적 과정으로 거쳤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대가야의 ‘하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성격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던지 간에 부의 실재가 확인되는 마당이라면 당시 도달한 대가야의 정치체 수준이 단순한 읍락국가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배체제를 겨냥해 항진하던 상태였음을 보여 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앞서 소개한 ‘대왕’호가 실재하였음도 그를 방증해 주는 사례의 하나로서 손꼽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하부는 대가야의 지배체제가 문헌에만 의존한 기존의 이해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뚜렷이 입증해주는 실례라 하겠다.

어느 시기부터 가야의 여러 세력 가운데 가장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대가야는 여타의 다른 경쟁 세력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될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였거니와 그런 양상을 실증하는 것이 고령의 지산동고분군에 산재한 대형의 고총고분 규모와 수량 등의 고고자료와 함께 479년 가라국왕 荷知가 단독의 힘으로 南齊에 사신을 파견해 교섭하고 ‘輔國將軍本國王’이란 작호를 수령한 사실이다. 가야의 여러 정치세력 가운데 내부적으로 대가야 지배자가 ‘대왕’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명분도 바로 그런 데에서 찾아진다. 그런 정황

14) 朱甫曠, 1992 「삼국시대의 貴族과 身分制 -신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2006 「신라의 部와 部體制」 『釜大史學』 30.

은 5세기 전반 왜5왕이 자칭한 작호 속에 임나와 함께 대가야로 추정되는 加羅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로부터도 유추된다. 그런 정황으로 미루어 대가야는 가야 제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마침내 내적인 자기 변신을 도모함으로써 정치적 통합 운동을 추구할 만한 에너지를 비축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그런 추정을 밑받침해 주는 것이 대가야의 영역 확장 실태이다.

5세기 이후 낙동강 유역권이 신라에 의해 장악되자 대가야는 바깥 세계와의 통교를 통해 적절히 생존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를 위해 기존의 낙동강 수로 대신 새로운 통로를 적극 개발해야만 하였다. 오랜 노력과 거듭된 도전의 결과로서 마침내 섬진강을 통해 남해안에 이르는 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이른 것 같다. 대가야가 그와 같이 힘들게 확보한 섬진강 통로를 영속적으로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그 연변의 다양한 정치세력을 대상으로 항상적인 영향력 행사는 필수적 전제조건이었다. 대가야는 그들과 어떤 형태로건 정치적 연결고리를 갖고 이를 계속 유지해 가야만 하였다. 그런 실상이 이 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굴이나 지표조사 등을 통해서 출토되는 대가야 계통의 遺蹟과 遺構 및 유물이 입증해 주고 있다.<sup>15)</sup>

다만, 대가야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놓고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약간씩 해석상의 차이를 보인다. 대가야계 고고자료들이 확인되는 지역 전부를 동일하게 정치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견해로부터, 각기 독립성을 지니고서 대가야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고 간주하는 견해, 직접지배와 간접지배 지역 및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은 지역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 등으로 엇갈려 있다. 이는 문헌이 아닌 고고자료를 주요 근거로 삼은 정치사적 해석의 어려움을 입증해 주는 일이지만, 여하튼 그 자체는 대가야의 정치적 성격이 크게 달라지고 있었음을 뜻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한 실례이다.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와 발전을

15) 이에 대해서는 주보돈, 2012 「5-6세기 鎭江上流 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향방」 『大丘史學』 106.

통해서 대가야 자체 내부도 크게 변모를 겪고 있었다. ‘대왕’호와 ‘부’는 바로 그런 배경 아래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대가야의 중심부는 기왕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의젓한 王都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륵이 작성한 12곡을 여하하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 曲名 가운데 보이는 上加羅都와 下加羅都의 존재는 그런 실태를 방증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이상과 같은 개략적 사항들은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매개로 새롭게 제기된 과제들이다. 거기에 내재된 의미나 내용, 立論의 타당성 등을 놓고서 공개적인 활발한 논전이 요구된다. 가야사의 새로운 체계화를 위해서 舊說은 물론 新說에 대한 허심탄회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논의 자체가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 것인지를 떠나서 일단 가야사 연구 자체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첩경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자료에 근거한 신설들은 대체로 무조건 외면당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게 엿보인다. 그러고서도 가야사 연구가 활발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緣木求魚의 행태에 지나지 않을 따름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 IV.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색

지금까지 두 장에 걸쳐서 근자에 가야사 연구가 부진해진 소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자세와 함께 연구자들 사이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비판과 反비판을 통한 활발한 토론문화나 상호 소통이 결여된 데에 있음을 지적하여 보았다. 가야사 연구자들 간에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볼 때 일종의 암묵적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들은 그것이 거꾸로 오래도록 소외당한 가야사를 지켜내는 正道라 여겼을지도 모르겠다. 그와 같은 분위기의 일단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四國時代論을 손꼽을 수 있다.

이른바 4국시대론은<sup>16)</sup> 삼국시대 설정에서 어떻게 가야사가 빠져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물론 당연하게도 가야사를 삼국과 대등하게 다루자는 주장은 제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는 내용상의 적절성, 합리성, 그리고 역사성 등 기초적 작업을 철저히 거치면서 공론화하고 논증하는 중간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한다. 그리고 반론이 제기되면 그를 구체적으로 다룸이 또한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 當爲論的 입장에서 주장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이나 외침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4국시대론이 일반적 인식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고대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커다란 문제 제기이므로 더더욱 공론화를 거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가야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기대에 미칠 정도의 활발한 논쟁, 논전을 거친 적은 없는 듯하다. 가야사 연구자들은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기 때문이다.

사실 4국시대론의 元祖는 『삼국유사』 王曆篇인 것으로 보인다. 일연은 왕력편을 작성하면서 「駕洛國記」에 의거해 首露가 건국하였다는 서력 기원후 42년부터 삼국에 더해 그 아래에 동등하게 가락국(금관가야)의 난을 따로 한 칸 더 마련하였다. 비록 가장 아래에 배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건국이 가장 늦었던 데서 비롯된 일이었을 뿐이다. 여하튼 그것은 일연의 가야사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 주는 조치였다. 적어도 『삼국유사』라는 책명과 어울리지 않게 일연은 가야사를 삼국과 대등하게 다루어보려는 적극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다만, 그러면서 오가야조에서는 가야사회가 정치적으로 분립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내용상 서로 모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가야사회가 분리된 상태였으나 마침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는 인

16) 김태식,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식 아래 정리된 것일 수도 있다. 紀異篇 말미에다 다시 따로 「가락국기」를 배치하고 있는 사정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그것은 여하튼 현재 4국시대론은 거창한 주장이기는 하였지만 가야가 하나로 통합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정치세력으로 분립해 내부적으로 각축하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은 근본 문제이다. 가야 정치체의 국가적 성격이 삼국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또한 대상으로 삼아야 할 문제이다. 4국시대의 논리대로라면 고구려보다 한층 먼저 단일한 국가를 성립시켜 5세기 말까지 존속한 부여도 동일한 범주에 당연히 넣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음이 마땅하다. 사실 가야를 내세우려 시도한 일연도 책명을 『삼국유사』라 한 사실에서 유추되듯이 ‘삼국’이란 단어는 마치 하나의 관용어처럼 이미 굳어진 상태였으므로 그 용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장차 4국시대론을 널리 통설로 받아들여지도록 시도하려면 무조건 선언만 해 두는 태도를 자제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정당한 논리 및 근거를 더 내세우는 데 한층 가열찬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터이다. 그동안 그렇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야사 연구자들 사이에 지닌 인식 및 자세의 문제점도 뚜렷이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가야사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그를 근거로 한국고대사의 체계화에 기여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도 많다. 문헌을 더욱 더 치밀하게 재검토하는 일로부터 시작해 기존에 확보된 것은 물론 발굴을 통해 새로이 알려지는 고고자료도 적극 활용하면서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의 대화와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날 가야사 분야가 여러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언제나 약세의 입장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려고만 든다면 이는 과거처럼 또 다른 우를 범하는 셈이 된다. 다른 분야 연구자와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논쟁하며 새롭게 접근하려는 자세가 요망된다. 가야의 구성세력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합집산을 거듭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수치도 계속 바뀌어졌

다. 그들 사이에도 優劣의 세력 격차가 있었다. 그에 따라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달랐던 데서 비록 각각 독립적 국명을 가졌으나 상하관계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때로는 그들이 개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 과정을 밟아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어 갔으므로 신라와 가야의 境域도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매개 국가별로 고고학의 도움을 빌어 사례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구 성과들이 꾸준하게 축적되어갈 때 가야사의 진면목은 저절로 드러나게 될 터이다. 그럴 때 다시 가야사의 성격론, 4국시대론 등은 충분히 재검토될 수가 있다.

산적한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연구가 침체된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은 결국 이 방면 연구자들의 기존 자설을 고수하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새로운 자료 및 새로운 문제 제기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 그런 상황을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야사 연구는 영원히 침체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길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지난날을 되새김질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우를 범해 차후 이어지는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투고일 : 2017.02.06	심사개시일 : 2017.02.21	심사완료일 : 2017.03.11
------------------	--------------------	--------------------

## 참고문헌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시장·군수협의회, 2014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 김태식, 2014 『사국시대의 가야사 연구』, 서경문화사
- 남재우, 1995 「가야사에서의 ‘연맹’의 의미」 『창원사학』 2
- 백승충, 1993 「임나부흥회의의 전개와 그 성격」 『부대사학』 17
- 백승충, 2005 「가야의 지역연맹체론」 『지역과 역사』 17
- 백승욱, 2014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가야지역국가론」 『지역과 역사』 34
- 宋源永, 2010 「金官加耶와 廣開土王碑 更子年 南征記事」, 부산대석사학위논문
- 신경철, 1995 「金海 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 이영식, 1985 「가야제국의 국가형성문제 -가야연맹설의 재검토와 전쟁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32
-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혜안
- 朱甫噉, 1992 「삼국시대의 貴族과 身分制 -신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 朱甫噉, 1995 「序說 -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가야사연구』, 경상북도
- 朱甫噉, 2006 「신라의 部와 部體制」 『釜大史學』 30
- 朱甫噉, 2006 「고구려 남진의 성격과 그 영향 -광개토왕 南征의 실상과 그 의의-」 『大丘史學』 82
- 朱甫噉, 2012 「5-6세기 錦江上流 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향방」 『大丘史學』 106
- 千寬宇, 1977 「復元 加耶史(上)」 『文學과 知性』, 1977 여름호
- 千寬宇, 1977 「復元 加耶史(中)」 『文學과 知性』, 1977 가을호
- 千寬宇, 1978 「復元 加耶史(下)」 『文學과 知性』, 1978 봄호
-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 일조각

## Abstract

### Suggestions for a New Development in a Study on the History of Gaya

Ju, Bo-don

Based on the fact that, in recent years, a study on the history of Gaya has lost vitality and has been sluggish on both sides of quality and quantity, this paper intended to briefly examine the problems inherent and search ways to activate the study. The study on the history of Gaya has made a great success since 1970s, when it once ran into a kind of boom. As a result, by raising the performance unprecedentedly, the comprehension of the history of Gaya could be improved even more than before. Considering the fact that historical records of the history of Gaya were very rare and even those records had many problems in them, it may safely be said that it was a significant growth. It seems that there was a surge in archaeological data through excavation rather than an increase in new literature materials.

For some unaccountable reasons, the study on the history of Gaya seems to have lost its vitality on both sides of quality and quantity in recent years. This paper posed a challenge to find out a way to enjoy the heyday again by tracking and analyzing that cause.

Key words : A study on the history of Gaya, Activation, Archaeological data, Literature materials, Posing a challenge